

# 기혼 직장인의 성인애착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정지후  
선문대학교 통합의학

##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f Married Employees on Job Motivation: Mediating Effect of Marital Relationship

Ji-Hu Jeong

Department of Integrative Medicine, Sun 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직장인의 성인애착, 직무동기, 부부관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의 기혼직장인 370명을 연구 대상으로 2016년 9월 10일~10월 14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관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령대에 따라 애착회피, 부부관계, 직무동기, 학력에 따라 애착회피, 부부관계, 결혼기간에 따라 애착회피, 부부관계, 직책에 따라 직무동기, 가계의 연평균 소득에 따라 부부관계, 근무형태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애착회피와 직무동기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애착회피와 부부관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직무동기와 부부관계 간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성인애착과 직무동기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이 직무동기에 주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내 직무동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러한 특징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ult attachment of married employees, their job motivation and marital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370 married employees in the Chungnam area as the target from Sep. 10 to Oct. 14, 2016.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3.0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revealed in the level of attachment avoidance,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according to the age group, in the level of attachment avoida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in the level of attachment avoida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marriage period, in job motivation according to the position, in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and in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work shift pattern. Second, although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ppeared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job motivation. Also, although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ppeared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marital relationship,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job motivation and marital relationship. Thir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marital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job motivat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s a result, the indirect effect of attachment anxiety on job motivation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and its complete mediating effect was confirmed. This suggests that when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job motivation within the workplace or consultative interventions for the enhancement of marital relationships,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Keywords:** Married employees,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marital relationship, job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Ji-Hu Jeong(Sun Moon University)

Tel: +82-10-2382-7207 email: chongkn@naver.com

Received December 14, 2016

Revised (1st January 10, 2017, 2nd January 16, 2017, 3rd February 1, 2017, 4th

Accepted February 3, 2017

February 2,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며, 인생의 초기단계인 영아기에 보살핌, 보호, 안전, 지지, 애정 등의 사회적 발달의 중요한 선행요인인 애착(attachment)이 형성된다. 유아기의 애착은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면,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은 더 확장된 관계에서 형성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나 이성 친구, 성인기에는 연인, 배우자, 자녀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노년기에 들어서는 자신보다 어린 세대에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1][2]. 이러한 중요한 사람에게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사람들은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즉, 성인애착은 한 인간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일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지대를 제공하므로 두 영역 모두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4][5]. 따라서 성인애착은 성인기 발달과업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관계가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부부관계라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를 통한 삶의 질은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 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6]. 부부관계의 결혼만족, 부부의 동질감,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만족의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개인적 변인 및 부부관계 변인으로 그 범위를 넓혀왔다[7].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성인기는 직업과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을 겪게 된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조직에서 보내기 때문에 조직에서 성인애착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조직에 직무동기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부관계의 역할이 많은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직무 동기는 조직의 맥락 안에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직무에 관련된 행동을 야기하고 그 형태, 방향, 강도, 지속시간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정신적인 힘을 말한다[8]. 기존의 연구들은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성인애착과 직무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미흡

하다. 하지만 성인애착과 부부관계의 만족은 일의 직무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조직에서 조직원들의 가족의 의사소통, 신뢰형성은 자신의 영역에서 능력과 자긍심을 갖게 하여 동기부여가 증가하게 한다.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만족시키고, 조직의 목표(organizational goal)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effort)하는 과정을 말한다[9].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직무동기에 부여하는 업무자체의 즐거움, 성취감,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직무에 동기부여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직무동기가 발생하여 조직원들은 긴장(tension)하게 되어 업무의 몰입이나 업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직무 동기는 조직에서 한 개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성과의 감소,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6]. 최근 들어 차츰 직무소진과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기혼직장인의 직무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관련하여 제시된 것이 부족하다. 특히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인 성인애착과 직무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하다. 이에 기혼직장인의 성인애착과 직무동기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혼 직장인의 성인애착과 직무동기에서 부부관계만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혼직장인들에게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제공하고, 조직구성원 개인의 삶의 만족, 부부관계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성인애착

성인애착의 개념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에 이르러 애착대상이 확대된다고 보았다[10]. 성인기에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애착 대상이 가까이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분리되었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성인 애착의 개념을 부부관계에 적용하여 연구하려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11]. 성인애착은 성인기의

연인,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동이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의 주요 특징인 근접성의 추구, 안전기지, 안식처의 개념이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에 Brennan, Clark와 Shaver[12]에 의해 성인애착이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성인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우자를 안식처와 안전기지로 활용하여 스트레스에서 극복하고자 한다[13].

애착회피는 친밀감을 두려워하며 심리적, 정서적 독립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회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친밀해지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근접성을 추구하려고 하다가도 배우자를 안식처와 안전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회피한다.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불편감을 느낄 때 애착대상들로부터 철수를 하거나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된다[14].

애착불안은 타인들에게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구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애착불안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표상 차원과 관련이 있다. 애착불안이 높다는 것은 친밀한 대상과 가까워지거나 수용되고, 타인들로부터 지지 또는 확신 받는 것에 대한 욕구 정도가 높다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아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고,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독립성과 탐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았다[15]. 애착회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대상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머뭇거리고, 애착불안 특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러한 성인애착은 부부관계에서와 같이 사랑, 안정감, 편안함을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활성화된다[17].

## 2.2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결혼의 법률적 제도를 통해 얻게 된 지위나 역할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서적 친밀감을 충족시키려는 정서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부부들은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과 같은 개인 내적인 특성이 부부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18][19]. 부부관계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배우자가 가까이에서 안식처와 안전한 기지와 같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따라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3]. Yang[20]의 연구에서 중년기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Lee[21]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의사소통, 부부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부역할에 대해 평등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클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2].

## 2.3 직무동기

직무동기(job motivation)는 직무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일의 형태, 일의 방향, 일의 강도, 일의 지속 시간 등과 관련하여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정신적인 힘(energetic force)을 말한다. 동기는 행동이 시작되게 하고 유지되게 하며 행동의 강도와 양태 및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23].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조직의 문화, 상사의 리더십, 직무에 대한 몰입, 직무동기, 직무 전반에 대한 직무만족 등이 있다. 특히, 이 중 조직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무동기이다. 조직에서 동기유발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 전체의 성과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성과는 능력과 동기유발 및 환경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능한 조직구성원들이 있어도 조직구성원들의 동기 유발되지 않아 노력하지 않을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무 동기는 조직의 효율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경영자나 기업, 회사들은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일하려는 의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동기를 활용

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 동기는 조직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직구성원들을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직무 동기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조직과 조직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인식이 바뀌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무동기에 대한 연구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요인들은 성별, 나이, 결혼상태, 경제수준, 학력, 직급, 재직기간 등이 있다.

성별이 직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직무동기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24][25].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직무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6]. 그리고 성별에 따른 직무 동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7].

Han[28]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Morris와 Sherman[29]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동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직무 동기는 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5].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25], 직급과 직무 동기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0]. 근속기간이 직무동기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으나[31], 근속기간은 직무동기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2]. 즉, 어떤 학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어떤 학자는 부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보았으며, 또 어떤 학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수가 직무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아직까지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호텔 식음료 부서 직원의 직무동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3]. 경제적 보상이나 승진 등의 외재적 동기가 직무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직무동기의 모든 동기차원은 서로 정적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과 회사원의 동기부여 요인비교에서 한국의 공무원은 보수, 안정 등 외재적 요

인이 주요 동기부여 요인이고, 회사원은 내재적 요인이 주된 동기부여 요인임을 밝혔다[35].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기혼직장인들의 성인애착, 부부관계가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Fig.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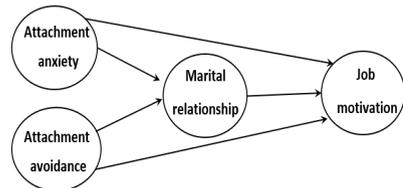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기혼직장인의 성인애착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애착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인애착, 부부관계, 직무동기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 2) 성인애착, 부부관계, 직무 동기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 3) 부부관계는 성인애착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 3.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혼직장인의 성인애착, 직무동기, 부부관계만족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애착이 직무동기와 부부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3.4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기혼직장인 중 대기업에 종사자 300명, s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182명, 외국계 기업 종사자 65명, 중소기업 종사자 43명으로 총 590명으로 연구대상자로 표집 하였다. 이 중

479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09부를 제외하고 총 37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3.5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성인애착 36문항, 직무동기 16문항, 부부관계만족도 23문항으로 총 85문항의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 3.5.1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Fraley, Waller와 Brennan이 개발한 성인애착 유형검사인 친밀과계경험-개정판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Kim[3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R은 총 36문항이며 애착불안 18문항, 애착회피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요인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ECR-R C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t방식 7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Kim[3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애착불안 .89이고 애착회피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애착불안 .806, 애착회피 .724로 나타났다.

#### 3.5.2 직무동기

직무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Barbuto and Scholl[37]가 개발한 MSI(Motivation Source Inventory)를 Lee[38]가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SI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영역은 성취감(5문항), 업무만족(3문항), 보상인식(4문항), 인정기대(4문항)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방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동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38]의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성취감 .80, 업무자체의 즐거움 .67, 인정에 대한 기대 .71, 보수 가치의 인식 .5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검사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90로 나타났다.

#### 3.5.3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은 Roach가 개발하고, Roach, Fraizer & Bowden이 수정한 MSS를 Hur[39]가 재구성한 척도(11문항)와 의사소통을 정하기 위하여 Jung, Kim[40]이

개발한 가족기능평가 척도의 의사소통(1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방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고안되었으며, 이것은 자신의 부부 관계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Hur[39]의 연구에서는 측정된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2로 나타났다.

Jung, Kim[40]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Cronbach’s  $\alpha$  값은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의 값은 .708로 나타났다.

### 3.6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9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479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에 불성실한 자료 109부를 제외한 총 37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3.7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를 위해 연구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추후 연구결과에 대한 사항이 궁금할 시 문의를 해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 3.8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에 제시된 Table 1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연구변인들이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인애착, 부부관계, 직무동기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N=370)

Factor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55	69.8
	Female	115	31.1
Age	20's	25	6.8
	30's	198	53.5
	40's	108	29.2
	50's or older	39	10.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17	31.6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9.5
	University graduate	88	23.8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5.1
Number of years (marriage)	Less than 10 years	203	54.9
	Less than 10~20 years	107	28.9
	Longer than 20 years	60	16.2
children	Yes	370	100.0
Years of continued employment	Less than 10 years	140	37.8
	Less than 10~20 years	144	38.9
	Longer than 20 years	86	23.2
Source of income	Oneself	149	40.3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59.7
positions	Employee	273	73.8
	Manager	97	26.2
Average annual income	Less than 38 million won	24	6.5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29.7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63.8
Employment form	Day shift	217	58.6
	Shift work	153	41.4

다. 넷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관계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매개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간접효과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뒤 이 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부스트랩 샘플은 2,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370명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자녀유무, 근속연수, 가계소득원, 직책, 가계의 연평균 소득, 근무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항목은 10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255명으로 69.8%, 여자는 115명으로 31.1%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는 25명(6.8%), 30대는 198명(53.5%), 40대는 108명(29.2%), 50대 이상 39명(10.5%)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은 31.6%(117명), 전문대졸은 39.5%(146명), 대학 졸은 23.8%(88명), 대학원졸 이상 5.1%(19명)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을 살펴보면, 10년 미만은 54.9%로 203명, 10~20년 미만은 28.9%로 107명,

20년 이상 16.2%로 60명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살펴보면, 유는 370명으로 100.0%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0년 미만은 140명(37.8%), 10~20년 미만은 144명(38.9%), 20년 이상 86명(23.2%)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을 살펴보면, 본인은 40.3%(149명), 맞벌이 59.7%(221명)로 나타났다. 직책을 살펴보면, 사원급은 73.8%로 273명, 간부급은 26.2%로 97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을 살펴보면, 3800만원 미만은 24명으로 6.5%, 3800~5800만원 미만은 110명으로 29.7%, 5800만원 이상은 236명으로 63.8%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주간근무는 217명(58.6%), 교대근무 153명(41.4%)으로 나타났다.

#### 4.2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부부관계, 직무동기 기술통계치

먼저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정상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변인들의 왜도값은 -.43에서 .03, 첨도값은 -.52에서 .97사이로 나타나 West, Finch와 Curran[41]이 제시한 정상분포의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2, 첨도<7)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Factors	Min	Max	M	SD	Skew	Kur
Attachment anxiety	1.00	5.17	2.80	.83	.03	-.52
Attachment avoidance	1.94	5.56	3.76	.65	-.29	-.08
Marital relationship total	1.09	5.00	3.65	.65	-.14	-.18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1.00	5.00	3.60	.86	-.40	-.07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1.00	5.00	3.61	.83	-.43	.35
Communication	1.00	5.00	3.68	.67	-.12	-.20
Job motivation total	1.19	5.00	3.60	.53	-.09	.97
Sense of achievement	1.40	5.00	3.68	.60	-.26	.77
Enjoyment	1.00	5.00	3.39	.75	-.06	.18
Expectation	1.00	5.00	3.64	.69	-.30	.34
Perception of value	1.00	5.00	3.60	.67	-.16	.20

####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인 간의 차이

먼저 성인애착의 두 차원, 부부관계, 직무동기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대, 학력, 결혼기간,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가계 소득형태, 직장에서의 직책, 가계의 연평균 소득, 근무형태였으며, 종속변인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인 결혼생활만족, 부부동질감, 의사소통, 직무동기의 하위요인인 성취감, 즐거움, 인정기대, 보수 가치에 대한 인식이었다.

##### 4.3.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 유형 중 애착회피

( $F=3.93, p<.01$ ), 부부관계 전체( $F=3.18, p<.05$ ), 부부관계의 하위요인 중 결혼생활만족( $F=4.16, p<.01$ )과 부부동질감( $F=5.08, p<.01$ ), 직무동기 전체( $F=3.10, p<.05$ ), 직무동기의 하위요인 중 성취감( $F=3.24, p<.05$ )과 보수 가치인식( $F=8.20, p<.001$ )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을 중심으로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애착회피는 50대 이상의 점수가 20대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동질감은 20대와 30대의 점수가 50대 이상의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생활만족과 보수 가치인식은 3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부관계 전체, 직무동기 전체, 성취감의 경우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비교쌍이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Gender

Factors	Gender	N	M	SD	t
Attachment anxiety	Male	255	2.82	.81	.83
	Female	115	2.75	.86	
Attachment avoidance	Male	255	3.74	.65	-.60
	Female	115	3.79	.66	
Marital relationship total	Male	255	3.66	.63	.75
	Female	115	3.61	.70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Male	255	3.64	.84	1.26
	Female	115	3.52	.90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Male	255	3.64	.79	.94
	Female	115	3.55	.90	
Communication	Male	255	3.69	.66	.22
	Female	115	3.67	.68	
Job motivation total	Male	255	3.62	.53	1.08
	Female	115	3.55	.54	
Sense of achievement	Male	255	3.67	.59	-.74
	Female	115	3.71	.61	
Enjoyment	Male	255	3.41	.73	.82
	Female	115	3.34	.79	
Expectation	Male	255	3.66	.69	.73
	Female	115	3.60	.68	
Perception of value	Male	255	3.66	.65	2.81**
	Female	115	3.45	.69	

\* p < .05, \*\* p < .01, \*\*\* p < .001

**4.3.2 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 중 애착회피(F=3.50, p<.01), 부부관계 전체(F=3.87, p<.05)와 의사소통(F=4.00, p<.01), 직무동기 중 보수 가치인식(F=3.97, p<.01)에서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들 변인 중 Scheffe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된 것은 애착회피였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애착회피 점수가 전문대 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부관계 전체, 의사소통, 보수가치인식의 경우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비교쌍이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Age

Factors	Age	N	M	SD	F (Scheffe)
Attachment anxiety	20's	25	2.67	.86	.32
	30's	198	2.81	.88	
	40's	108	2.84	.78	
	50's or older	39	2.76	.67	
Attachment avoidance	20's	25	3.63 <sub>a</sub>	.72	3.93** (a=b=c, c=d, d>a)
	30's	198	3.71 <sub>b</sub>	.70	
	40's	108	3.76 <sub>c</sub>	.57	
	50's or older	39	4.08 <sub>d</sub>	.47	
Marital relationship total	20's	25	3.72	.61	3.18*
	30's	198	3.73	.66	
	40's	108	3.56	.62	
	50's or older	39	3.44	.67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20's	25	3.57 <sub>a</sub>	.86	4.16** (a=b=c, a=c=d, b>d)
	30's	198	3.70 <sub>b</sub>	.85	
	40's	108	3.58 <sub>c</sub>	.81	
	50's or older	39	3.18 <sub>d</sub>	.93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20's	25	3.77 <sub>a</sub>	.81	5.08** (a=b=c, c=d, a, b>d)
	30's	198	3.73 <sub>b</sub>	.81	
	40's	108	3.50 <sub>c</sub>	.81	
	50's or older	39	3.23 <sub>d</sub>	.86	
Communication	20's	25	3.73	.66	1.21
	30's	198	3.73	.70	
	40's	108	3.59	.62	
	50's or older	39	3.64	.66	
Job motivation total	20's	25	3.46	.80	3.10*
	30's	198	3.66	.49	
	40's	108	3.58	.54	
	50's or older	39	3.41	.39	
Sense of achievement	20's	25	3.39	.84	3.24*
	30's	198	3.72	.57	
	40's	108	3.72	.59	
	50's or older	39	3.54	.53	
Enjoyment	20's	25	3.41	.98	.06
	30's	198	3.41	.72	
	40's	108	3.37	.81	
	50's or older	39	3.38	.60	
Expectation	20's	25	3.53	.94	1.42
	30's	198	3.69	.65	
	40's	108	3.66	.73	
	50's or older	39	3.46	.52	
Perception of value	20's	25	3.52 <sub>a</sub>	.88	8.20*** (a=b=c, a=c=d, b>d)
	30's	198	3.73 <sub>b</sub>	.62	
	40's	108	3.50 <sub>c</sub>	.67	
	50's or older	39	3.22 <sub>d</sub>	.58	

\* p < .05, \*\* p < .01, \*\*\* p < .001

#### 4.3.3 학력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 중 애착회피(F=3.50, p<.01), 부부관계 전체(F=3.87, p<.05)와 의사소통(F=4.00, p<.01), 직무동기 중 보수 가치인식(F=3.97, p<.01)에서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들 변인 중 Scheffe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애

착회피였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애착회피 점수가 전문대 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부관계 전체, 의사소통, 보수가치인식의 경우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비교쌍이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5.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Education level

Factors	Education level	N	M	SD	F (Scheffe)
Attachment anxiety	High school graduate	117	2.78	.79	.16
	Junior college graduate	146	2.79	.82	
	University graduate	88	2.85	.90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2.79	.79	
Attachment avoidance	High school graduate	117	3.79 <sub>a</sub>	.65	3.50* (a=b=c, a=c=d, d>b)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64 <sub>b</sub>	.67	
	University graduate	88	3.83 <sub>c</sub>	.61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4.07 <sub>d</sub>	.59	
Marital relationship total	High school graduate	117	3.49	.61	3.87*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75	.59	
	University graduate	88	3.71	.70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52	.88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High school graduate	117	3.47	.87	1.72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68	.86	
	University graduate	88	3.68	.81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49	.91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igh school graduate	117	3.47	.85	2.52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70	.75	
	University graduate	88	3.71	.82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39	1.12	
Communication	High school graduate	117	3.52	.64	4.00**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80	.61	
	University graduate	88	3.72	.71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62	.88	
Job motivation total	High school graduate	117	3.58	.61	1.15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65	.51	
	University graduate	88	3.52	.45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60	.47	
Sense of achievement	High school graduate	117	3.58	.65	1.86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70	.58	
	University graduate	88	3.76	.55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78	.57	
Enjoyment	High school graduate	117	3.50	.79	1.64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39	.69	
	University graduate	88	3.27	.74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37	.93	
Expectation	High school graduate	117	3.65	.72	1.49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71	.67	
	University graduate	88	3.52	.65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64	.79	
Perception of value	High school graduate	117	3.57	.76	3.97**
	Junior college graduate	146	3.73	.63	
	University graduate	88	3.43	.58	
	Graduate school graduate or higher	19	3.50	.66	

\* p< .05, \*\* p < .01, \*\*\* p<.001

#### 4.3.4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에서 애착회피(F=5.11, p<.01), 부부관계 전체(F=3.33, p<.05), 결혼생활만족(F=4.08, p<.05), 부부동질감(F=5.35, p<.01), 직무동기에서 보수 가치인식(F=9.37, p<.001)에서 결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Scheffe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애착회피의 경우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응답자들의 점수가 20년 미만인 응답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부부관계 전체, 결혼생활만족, 부부동질감, 보수가치의 인식은 모두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집단의 점수가 20년 이상인 집단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3.5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 부부관계, 그리고 직무동기 모두 직장에서의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6 소득형태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무동기 중 보수 가치에 대한 인식(t=3.22, p<.01)에서 소득형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본인 외벌이인 경우에 맞벌이인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Number of years (marriage)

Factors	Number of years (marriage)	N	M	SD	F (Scheffe)
Attachment anxiety	Less than 10 years	203	2.83	.86	.27
	Less than 10~20 years	107	2.76	.83	
	Longer than 20 years	60	2.77	.73	
Attachment avoidance	Less than 10 years	203	3.70 <sub>a</sub>	.70	5.11** (c>a=b)
	Less than 10~20 years	107	3.73 <sub>b</sub>	.61	
	Longer than 20 years	60	4.00 <sub>c</sub>	.52	
Marital relationship total	Less than 10 years	203	3.71 <sub>a</sub>	.67	3.33* (a=b, b=c, a>c)
	Less than 10~20 years	107	3.62 <sub>b</sub>	.58	
	Longer than 20 years	60	3.47 <sub>c</sub>	.66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Less than 10 years	203	3.68 <sub>a</sub>	.88	4.08* (a=b, b=c, a>c)
	Less than 10~20 years	107	3.60 <sub>b</sub>	.75	
	Longer than 20 years	60	3.33 <sub>c</sub>	.90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Less than 10 years	203	3.72 <sub>a</sub>	.82	5.35** (a=b, b=c, a>c)
	Less than 10~20 years	107	3.57 <sub>b</sub>	.76	
	Longer than 20 years	60	3.33 <sub>c</sub>	.90	
Communication	Less than 10 years	203	3.72	.70	.75
	Less than 10~20 years	107	3.66	.61	
	Longer than 20 years	60	3.60	.64	
Job motivation total	Less than 10 years	203	3.63	.54	1.13
	Less than 10~20 years	107	3.59	.51	
	Longer than 20 years	60	3.51	.52	
Sense of achievement	Less than 10 years	203	3.67	.62	.39
	Less than 10~20 years	107	3.72	.55	
	Longer than 20 years	60	3.66	.61	
Enjoyment	Less than 10 years	203	3.39	.75	.00
	Less than 10~20 years	107	3.40	.77	
	Longer than 20 years	60	3.39	.72	
Expectation	Less than 10 years	203	3.66	.71	.19
	Less than 10~20 years	107	3.64	.64	
	Longer than 20 years	60	3.60	.69	
Perception of value	Less than 10 years	203	3.72 <sub>a</sub>	.65	9.37*** (a=b, b=c, a>c)
	Less than 10~20 years	107	3.51 <sub>b</sub>	.64	
	Longer than 20 years	60	3.33 <sub>c</sub>	.70	

\* p< .05, \*\* p < .01, \*\*\* p<.001

**Table 7.**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Years of continued employment

Factors	Years of continued employment	N	M	SD	F (Scheffe)
Attachment anxiety	Less than 10 years	140	2.83	.84	.95
	Less than 10~20 years	144	2.73	.87	
	Longer than 20 years	86	2.87	.72	
Attachment avoidance	Less than 10 years	140	3.79	.64	1.45
	Less than 10~20 years	144	3.69	.69	
	Longer than 20 years	86	3.82	.60	
Marital relationship total	Less than 10 years	140	3.65	.72	1.17
	Less than 10~20 years	144	3.69	.62	
	Longer than 20 years	86	3.56	.57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Less than 10 years	140	3.68	.90	1.10
	Less than 10~20 years	144	3.59	.86	
	Longer than 20 years	86	3.50	.78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Less than 10 years	140	3.68	.86	1.57
	Less than 10~20 years	144	3.62	.82	
	Longer than 20 years	86	3.48	.79	
Communication	Less than 10 years	140	3.63	.74	1.95
	Less than 10~20 years	144	3.77	.64	
	Longer than 20 years	86	3.62	.59	
Job motivation total	Less than 10 years	140	3.57	.53	.23
	Less than 10~20 years	144	3.61	.53	
	Longer than 20 years	86	3.62	.53	
Sense of achievement	Less than 10 years	140	3.63	.59	.99
	Less than 10~20 years	144	3.70	.61	
	Longer than 20 years	86	3.73	.59	
Enjoyment	Less than 10 years	140	3.37	.76	.92
	Less than 10~20 years	144	3.36	.73	
	Longer than 20 years	86	3.49	.77	
Expectation	Less than 10 years	140	3.61	.70	.37
	Less than 10~20 years	144	3.65	.68	
	Longer than 20 years	86	3.69	.68	
Perception of value	Less than 10 years	140	3.62	.63	1.10
	Less than 10~20 years	144	3.63	.69	
	Longer than 20 years	86	3.50	.70	

\* p< .05, \*\* p < .01, \*\*\* p<.001

**Table 8.**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Source of income

Factors	Source of income	N	M	SD	t
Attachment anxiety	Oneself	149	2.80	.86	-.08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2.80	.81	
Attachment avoidance	Oneself	149	3.73	.60	-.56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77	.69	
Marital relationship total	Oneself	149	3.66	.65	.40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64	.65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Oneself	149	3.60	.92	.02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60	.81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Oneself	149	3.62	.88	.09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61	.79	
Communication	Oneself	149	3.71	.65	.66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66	.68	
Job motivation total	Oneself	149	3.65	.53	1.46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56	.53	
Sense of achievement	Oneself	149	3.68	.58	-.10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68	.61	
Enjoyment	Oneself	149	3.44	.76	1.06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36	.74	
Expectation	Oneself	149	3.67	.67	.64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62	.70	
Perception of value	Oneself	149	3.73	.65	3.22**
	A couple working together	221	3.51	.67	

\* p< .05, \*\* p < .01, \*\*\* p<.001

**4.3.7 직책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무동기 전체( $t=-3.63, p<.001$ )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 중 성취감 ( $t=-2.84, p<.01$ ), 인정기대( $t=-3.92, p<.01$ ) 그리고 보수

가치인식( $t=-2.82, p<.01$ )에서 직책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변인에서 사원급 보다는 간부급 응답자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positions

Factors	positions	N	M	SD	t
Attachment anxiety	Employee	273	2.79	.84	-.46
	Manager	97	2.83	.81	
Attachment avoidance	Employee	273	3.77	.65	.65
	Manager	97	3.72	.65	
Marital relationship total	Employee	273	3.64	.65	-.12
	Manager	97	3.65	.65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Employee	273	3.58	.89	-.67
	Manager	97	3.65	.75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Employee	273	3.61	.84	.04
	Manager	97	3.61	.78	

Communication	Employee	273	3.68	.65	-.03
	Manager	97	3.68	.71	
Job motivation total	Employee	273	3.54	.52	-3.63***
	Manager	97	3.76	.53	
Sense of achievement	Employee	273	3.63	.60	-2.84**
	Manager	97	3.83	.55	
Enjoyment	Employee	273	3.35	.71	-1.67
	Manager	97	3.50	.85	
Expectation	Employee	273	3.56	.68	-3.92***
	Manager	97	3.87	.65	
Perception of value	Employee	273	3.54	.65	-2.82**
	Manager	97	3.76	.70	

\* p < .05, \*\* p < .01, \*\*\* p < .001

#### 4.3.8 가계 연평균소득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관계 전체(F=6.52, p<.01)와 하위요인인 결혼생활만족(F=5.79, p<.01), 부부동질감(F=6.16, p<.01), 의사소통(F=3.83, p<.05), 그리고 직무동기의 하위요인인 성취감(F=3.16, p<.05)에서 가계의 연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관계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만족, 부부동질감, 의사소

통 점수는 모두 연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들의 점수가 3800만 원 이하인 응답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성취감의 경우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비교쌍이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연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10.**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Average annual income

Factors	Average annual income	N	M	SD	F (Scheffe)
Attachment anxiety	Less than 38 million won	24	2.77	.84	.16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2.77	.86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2.82	.81	
Attachment avoidance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95	.69	1.59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79	.65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72	.65	
Marital relationship total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19 <sub>a</sub>	.66	6.52** (b=c>a)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68 <sub>b</sub>	.66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68 <sub>c</sub>	.63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06 <sub>a</sub>	.75	5.79** (b=c>a)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58 <sub>b</sub>	.96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67 <sub>c</sub>	.80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05 <sub>a</sub>	.96	6.16** (b=c>a)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66 <sub>b</sub>	.84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65 <sub>c</sub>	.79	
Communication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32 <sub>a</sub>	.65	3.83* (b=c>a)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72 <sub>b</sub>	.66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70 <sub>c</sub>	.67	

Job motivation total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45	.42	1.79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55	.54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63	.53	
Sense of achievement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52	.47	3.16*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59	.61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74	.60	
Enjoyment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14	.71	1.51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39	.73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42	.76	
Expectation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53	.54	2.10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55	.68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70	.70	
Perception of value	Less than 38 million won	24	3.52	.63	.26
	Less than 38~58 million won	110	3.63	.66	
	More than 58 million won	236	3.59	.68	

\* p < .05, \*\* p < .01, \*\*\* p < .001

#### 4.3.9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 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관계 전체( $t=2.67$ ,  $p<.01$ )와 부부동질감( $t=-2.62$ ,  $p<.01$ ), 의사소통( $t=-2.17$ ,  $p<.05$ ), 그리고 직무동기 중 성취감( $t=2.27$ ,  $p<.05$ )에서 근무형

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전체, 부부동질감, 의사소통의 경우 교대근무인 응답자들의 점수가 높았으며, 성취감은 주간근무인 응답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Verification Result of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Marriage Relationship and Job Motivation Based on Employment form

Factors	Employment form	N	M	SD	F (Scheffe)
Attachment anxiety	Day shift	217	2.85	.79	1.34
	Shift work	153	2.73	.87	
Attachment avoidance	Day shift	217	3.79	.62	1.22
	Shift work	153	3.71	.69	
Marital relationship total	Day shift	217	3.57	.66	-2.67**
	Shift work	153	3.75	.62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Day shift	217	3.53	.87	-1.95
	Shift work	153	3.71	.83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Day shift	217	3.52	.85	-2.62**
	Shift work	153	3.74	.78	
Communication	Day shift	217	3.62	.67	-2.17*
	Shift work	153	3.77	.66	
Job motivation total	Day shift	217	3.62	.50	1.12
	Shift work	153	3.56	.57	
Sense of achievement	Day shift	217	3.74	.56	2.27*
	Shift work	153	3.60	.64	
Enjoyment	Day shift	217	3.42	.74	.72
	Shift work	153	3.36	.77	
Expectation	Day shift	217	3.68	.66	1.10
	Shift work	153	3.60	.72	
Perception of value	Day shift	217	3.58	.64	-.70
	Shift work	153	3.63	.71	

\* p < .05, \*\* p < .01, \*\*\* p < .001

#### 4.4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부부관계, 직무동기 간의 상관관계

성인애착, 부부관계, 직무동기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애착불안의 경우 애착회피와 유의

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r=.31, p<.001$ ), 부부관계 전체( $r=-.35, p<.001$ )와 직무동기 전체( $r=-.12, p<.05$ )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애착회피 역시 부부관계 전체( $r=-.22, p<.001$ )와 직무동기 전체( $r=-.27, p<.001$ )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전체의 경우 직무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r=.22, p<.001$ ).

Table 1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Research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Attachment anxiety	1										
2. Attachment avoidance	.31***	1									
3. Marital relationship total	-.35***	-.22***	1								
4.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20***	-.21***	.78***	1							
5.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23***	-.17**	.89***	.80***	1						
6. Communication	-.40***	-.19***	.88***	.47***	.58***	1					
7. Job motivation total	-.12	-.27***	.22***	.25***	.22***	.15**	1				
8. Sense of achievement	-.19	-.23***	.30***	.34***	.28***	.22***	.83***	1			
9. Enjoyment	-.06	-.26***	.18**	.18**	.18**	.12*	.71***	.50***	1		
10. Expectation	-.05	-.24***	.12*	.18**	.14**	.05	.87***	.63***	.50***	1	
11. Perception of value	-.06	-.14**	.10	.09	.09	.09	.75***	.44***	.33***	.59***	1

\*  $p < .05$ , \*\*  $p < .01$ , \*\*\*  $p < .001$

#### 4.5 성인애착과 직무동기에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관계만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순서대로 실시하였으며, 결과 해석 과정에서 모형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Hong[42]의 연구를 바탕으로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를 확인하였다.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게 되며[42], RMSEA의 경우 .05이하면 아주 좋은 모형, .08이하면 좋은 모형, .10이하면 보통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43]. 부부관계만족과 직무동기의 경우 각 척도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삼았으며, 별도의 하위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3개씩의 측정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매개모형 검증의 첫 단계로 실시한 측정모형 검증의 결과를 Fig 2, Table 13, Table 1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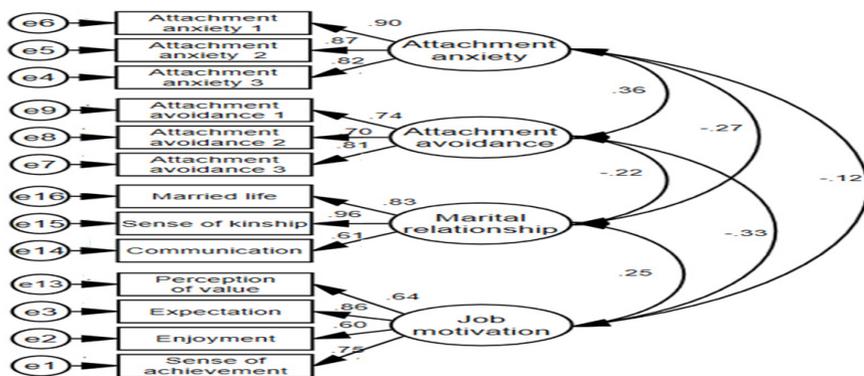


Fig. 2. Verification result of measurement model (Note: Coefficients exhibited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13. Goodness-of-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Model	$\chi^2$	df	CFI	TLI	RMSEA
Measurement Model	180.22***	59	.946	.928	.075 (.062-.087)

Table 14.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Variables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Devi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Attachment anxiety	⇒ Attachment anxiety 1	1.06	.05	.90***
	⇒ Attachment anxiety 2	1.14	.05	.87***
	⇒ Attachment anxiety 3	1.00	-	.82***
Attachment avoidance	⇒ Attachment avoidance 1	.79	.06	.74***
	⇒ Attachment avoidance 2	.62	.05	.70***
	⇒ Attachment avoidance 3	1.00	-	.81***
Marital relationship	⇒ Satisfaction level towards married life	1.75	.14	.83***
	⇒ Sens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1.96	.16	.96***
	⇒ Communication	1.00	-	.61***
Job motivation	⇒ Perception of value	.96	.09	.64***
	⇒ Expectation	1.33	.10	.86***
	⇒ Enjoyment	1.02	.10	.60***
	⇒ Sense of achievement	1.00	-	.7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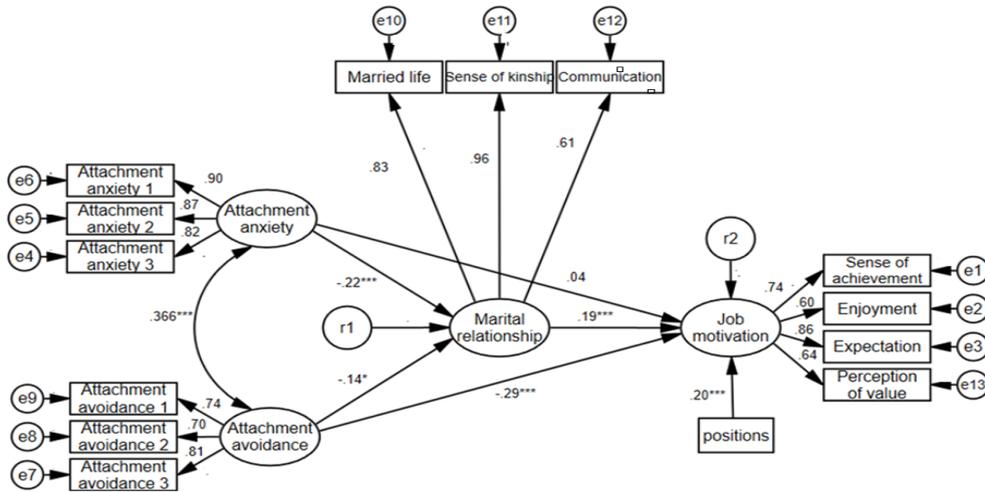


Fig. 3. Verification result of structural model (Note: Coefficients exhibited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13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 보면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모형 수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i^2=180.22$ ,  $p<.001$ , CFI=.946, TLI=.928, RMSEA=.075). 또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61에서 .96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측정변

수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수를 충분히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 Table 15, Table 16에 제시하였다. 앞서 실시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종속변인인 직무동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의 직책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5.** Goodness-of-Fit Index of Structural Model

Model	$\chi^2$	df	CFI	TLI	RMSEA
Measurement Model	188.86***	71	.947	.933	.067 (.056-.079)

**Table 16.**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Devi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Attachment avoidance ⇨ Marital relationship	-.21	.06	-.22 ***
Marital relationship ⇨ Marital relationship	-.14	.06	-.14 *
Marital relationship ⇨ Job motivation	.12	.04	.19 **
Attachment anxiety ⇨ Job motivation	.02	.04	.04
Attachment avoidance ⇨ Job motivation	-.18	.04	-.29 ***
positions ⇨ Job motivation	.21	.05	.20 ***

\* p<.05, \*\* p<.01, \*\*\* p<.001

**Table 17.** Verification Result of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Using Bootstrapping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Attachment anxiety ⇨ Marital relationship ⇨ Job motivation	-.004	.021	-.025 (-.060 ~ -.006)
Attachment avoidance ⇨ Marital relationship ⇨ Job motivation	-.195	-.178	-.017 (-.047 ~ -.003)

\* p<.05, \*\* p<.01, \*\*\*p<.001,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계수임

Table 15에 제시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 보면 모두 모형 수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8.86$ ,  $p<.001$ ,  $CFI=.947$ ,  $TLI=.933$ ,  $RMSEA=.067$ ). 다음 Table 16은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이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애착불안( $\beta=-.22$ ,  $p<.001$ ) 및 애착회피( $\beta=-.14$ ,  $p<.05$ )는 모두 부부관계와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관계는 직무동기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9$ ,  $p<.01$ ). 성인애착과 직무동기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애착회피는 직무동기와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beta=-.29$ ,  $p<.001$ ), 애착불안은 직무동기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인 직책은 직무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 ,  $p<.001$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관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에서 부부관계를 거쳐 직무동기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여 각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이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분석결과는 Table 17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에서 시작하여 부부관계를 거쳐 직무동기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비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025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랩 샘플을 통해 산출된 95% 신뢰구간은 -.060에서 -.006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에서 부부관계를 거쳐 직무동기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17이었으며, 이 값의 95% 신뢰구간은 -.047에서 -.003으로 나타났다. 두 신뢰구간 내에는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간접효과의 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성인애착, 부부관계, 직무동기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애착과 직무동기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의 매개역할을 파악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근속연수, 소득형태는 성인애착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부부관계, 직무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라 애착회피, 부부관계, 직무동기, 학력에 따라 애착회피, 부부관계진척, 결혼기간에 따라 애착회피, 부부관계, 직책에 따라 직무동기, 가계의 연평균 소득에 따라 부부관계, 근무형태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동기에서 연령, 직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직무동기의 선행연구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직무동기를 가진다는 연구결과[24][25]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직무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26]. 성별에 따른 직무 동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7].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28]와 학력에 낮을수록 직무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29]. 직무동기가 학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5].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25]와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고, 직급과 직무 동기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0].근속연수가 직무동기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31]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나, 근속연수는 직무동기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2].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직무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연령, 학력, 결혼기간, 가계의 연평균소득, 근무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30대가 50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와의 갈등도 커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44].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의 연령대로 부부가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30대 보다 50대가 낮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의 갈등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부부관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대한 지나친 몰두하거나, 버림받거나 혹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타인들과의 친밀함에 대한 꺼림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하다[45].

애착회피와 직무동기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직무동기는 감소한다는 연구와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46].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 하거나 거리를 두기 때문에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에 업무에 몰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애착회피와 부부관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부정적인 행동을 야기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15][47].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를 인식치나 안전기지로 자각하지 못하고 애착의 대상이 부부관계에서 철수하게 되므로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직무동기와 부부관계 간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직무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직무동기에서 부부관계의 매개역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애착회피는 직무동기에 직·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착불안이 직무동기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부부관계에서 경험되는 애착불안은 직무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에서의 정서적인 경험들이 직무동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인애착은 기혼직장인의 성인애착이 직무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 가족의 정서적인 측면인 부부관계에서 만족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직장인의 조직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성인애착과 부부관계를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기혼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애착, 직무동기, 부부관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계점으로는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일부의 연구대상자들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한계

점을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편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자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서 양적, 질적 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References

- [1] L. J. Kim, O. P. Jung, "The Relationship of Young Children'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Behavior at Home", 19(1), 89-104, 2012.
- [2] K. U. Kim, Marital Satisfaction and Coping Strategies of Marital Conflict in Relation With Adult Attachment Styles, 17(3), 707-734, 2005.
- [3] E. Hwang, & H. K. Choi, "Effect of couple attachment on the male young adult's job attachment and job qual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5(1), 123-146, 2002.
- [4] T. Y. Jung, S. J. Choi, J. K. Kang, "Relations of adult attachment with romantic love and personality trai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2), 85-102, 2000.
- [5] S. J. Lee, "Adult attachment styles and job satisfaction/involvement among unmarried men and wom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6] Y. S. Yang, B. W. Kim,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2), 683-69,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2.200906.683>
- [7] S. R. Yoom,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mmunication in Marital Satisfaction in South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3.
- [8] Wright, Bradley E, "Public Service and Motivation: Does Mission Matt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 54-64, 2007.  
DOI: <https://doi.org/10.1111/j.1540-6210.2006.00696.x>
- [9] R. M. Steers, L. W., "Porter, Motivation and Work Behaviors, 5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91.
- [10] C. Hazan, P. R.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198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 [11] R. S. Weiss,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 [12] K. A. Brennan, Clark, C. L., 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A.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13] N. L. Collins, B. C. Feeney,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053 - 1073,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8.6.1053>
- [14] J. Bowlby, "Attachment: Anxiety and anger", London: Hogharch Press, 1973.
- [15] J. A. Osland, "Theoretical models of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path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at Albany, 2002.
- [16] L. Shi,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143~157, 2003.  
DOI: <https://doi.org/10.1080/01926180301120>
- [17] B. Mallincrodt,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 239-266, 2000.  
DOI: <https://doi.org/10.1093/ptr/10.3.239>
- [18] O B. Je, "Psychological Violence and Mediating Effect of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Dankook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15.
- [19] K. M. Kim, Y. H. Kim, "Effects of A Coupl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on of Conflict on Marriag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4 (3), 327-352, 2009.
- [20] H. J. Yang, "Effects of Middle Aged Full-time Homemakers' Generativity and Family Relationship on Subjective Well-being: With Emphasis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ies", Yonsei University, M. A. Thesis, 2005.
- [21] K. B.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arriage Satisfaction by Family Life Cycle", Mokwon University, M. A. Thesis, 2006.
- [22] J. Y. Lee, "A Consideration of Housewives' Marriage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25 (1), 105-119, 1987.
- [23] S. H. Oh, "Organizational Theory", Seoul: Pakyoungsa, 1997.
- [24] M. H. Yoon, "A Study on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Immersion of Hospital Personnel", Pusan National University, M. A. Thesis, 1997.
- [25] D. B. Shin, "An Exploratory Study on Types of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Affecting Factors", Sungkyunkwan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7.
- [27] D. C. J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Consequ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M. A. Thesis, 1994.
- [28] I. K. Han, "Influence of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Moderating Variable on Labor Performance of Korea's Public Officials", Pusan National University. M. A. Thesis, 1992.
- [29] J. J. Morris, J. D. Sherman, "Generalizability of an Organizational Commitmen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3), 512-526, 1981.  
DOI: <https://doi.org/10.2307/255572>

- [30] S. W. Roh,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Immersion", Korea University. M. A. Thesis, 1996.
- [31] F. H. Luthans, D. Baack, and L. Taylo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alysis of Antecedent", *Human Relations*, 40(4), 219-236, 1987.  
DOI: <https://doi.org/10.1177/001872678704000403>
- [32] H. S. Kang, "A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ommitment of Judicial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to the Organiz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M. A. Thesis, 1997.
- [33] K. W. Ji, "Effects of Job Motivation of Employees of Hotel Food and Beverage Department and LMX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Studies in Hotel Management*, 18(2), 77-94, 2009.
- [34] K. J. Kwon, Y. S. Eo, H. R. Lee,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n Trust and Job Attitude: With VIPS employees of Chain Restaurants as Target", *Studies in Hotel Management*, 18(3), 153-170, 2009.
- [35] H. J. Kim, "Comparison of Motivation Factors of Public Officials and Company Employees", *Collected Articles of Korea Public Administration*, 12 (2), 265-285, 2000.
- [36] S. H. Kim,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4.
- [37] J. E. Barbuto, R. W. Scholl, "Motivation Sources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ew Scales to measure an Integrative Taxonom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ports*, 82: 1011-1022, 1998.  
DOI: <https://doi.org/10.2466/pr0.1998.82.3.1011>
- [38] H. W. Lee,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nd Job Motivation on Job Satisfactio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Ewha Women's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13.
- [39] Y. J. Hur, "Study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following the Type of Marriage Relations. MA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97.
- [40] S. R. Jeong, S. H. Kim, "The Effect of a Program for Enhancing Family Function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1), 165-182, 2006.
- [41] S. G. West, J. F. Finch &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 - 75, Thousand Oaks, CA: Sage, 1995.
- [42]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2000.
- [43] M. W. Browne,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993.
- [44] R. J. Sternberg, Dobson, D.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 analysis of stylistic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794-812, 1987.
-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2.4.794>
- [45] O. S. Jo, "Cohabiting Couples'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Instability Associated with Attachment, Relational Turbulence Characteristics & Social Pressure". Chungbuk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12.
- [46] K. L. Roh, H. J. Bang, & H. J. Jo, "Difference in Relationship Patterns Based on Adult Attachment and Gender. *Journal of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Woman*, 12 (4), 471-490, 2007.
- [47] H. W. Kim,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Marriage Dis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Behavior of Parents: Actor Effects and Partner Effects", Ewha Women's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15.

정지후(Ji-Hu Jeong)

[정회원]



- 2014년 2월 : 선문대학교 가족상담. 치료(사회복지학 석사)
- 2017년 2월 : 선문대학교 통합의학(이학박사)

<관심분야>  
사회복지 서비스/임상